

# 2023년 열린시정 동(洞) 주민과의



## #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한 자족도시 도약

'주민과의 대화'의 핵심 화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로의 도약이었다. 현재 고양시는 과밀억제·그린벨트·군사시설 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자세 등 세금이 타 지역보다 3배 높아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핵심 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생명의학, 문화, 전시복합산업(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고양시민의 자녀와 청년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통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인구는 군에서 시로 승격한 1992년에는 26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108만 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정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자족도시를 향한 핵심 전략이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용역을 거쳐 내년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대상지를 먼저 평가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내년 중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화 對話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민선8기 핵심 정책과 현안 공유를 위해 관내 41개 동(洞)을 순회 방문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양이가 그려나갈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공유했던 이날의 이야기를 키워드로 정리한다.

#경제자유구역, #창릉천, #광역교통망, #백석청사이전



3.10.(금)	3.12.(월)	3.14.(화)	3.15.(수)	3.17.(금)	3.20.(월)	3.21.(화)	3.23.(목)	3.24.(금)	3.27.(월)	3.28.(화)	3.29.(수)	3.30.(목)	3.31.(금)	4.3.(월)	4.5.(수)	4.6.(목)	4.7.(금)
고봉동	화전동 대덕동	행신2동 행주동 효자동	행신1동 행신3동	행신4동 능곡동	화정2동 화정1동	원신동	창릉동 삼송1동 삼송2동	장항1동 장항2동 흥도동	정발산동 고양동 관산동	마두2동 풍산동 식사동	중산1동	주엽2동 탄현1동	탄현2동 대화동 주엽1동 일신2동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중산2동 일산1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일산3동